목포시, 지역·산업맞춤형 청년특화 사업 속도

노동부 목포지청·목포대와 협력 공모 선정

청년 채용 온라인 직무 박람회 개최 예정

목포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청녀특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16일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 청년 특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 특화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산업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4차 공모로서 시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목포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거뒀다.

공모 명칭은 '청년 채용 온라인 직무 박람회'로 목포대학교와 인근 대학·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직무 멘토링, 취업교육,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취업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아우른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웹페이지를 구축해 직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목포대학교가 사업을 수행한다.

시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를 지원받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광주·전남 우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취·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청년·신중년 특화 분야 국가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수산식품 취업 ▲수산식품 창업 ▲목포9미(味) 취·창업 지원 ▲조선·선박·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 ▲스타트업·창업 컨설팅 사업 등 5개 분야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산식품 취업 지원은 20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기업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굿잡(중소기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204명이 취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산식품 창업 지원은 신청자 15명 중 11명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2명이 추가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목포9미(味) 취·창업 지원 사업은 16명이 교육에 참가한 가운데 9월 취업 경진대회를 거쳐 창업 대상자 중 1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선박·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은 11명이 교육 중이며 지난 7월 공모에 선정된 스타트업·창업 컨설팅 사업은 14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이승옥 강진군수 추석맞이 시장 방문

이승옥 강진군수가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인 지난 14일 추석 명절 준비로 분주한 강진읍 5일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강진군 제공〉

신안군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年 38만6천535㎾ 전력 생산

신안군은 16일 "군청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최근 박우량 군수, 군의회 의장, 군의원,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군청 주차장 3천440㎡ 부지에 발전 용량 300㎾ 규모로 국비 2억5천400만원, 군비 4억2천200만원 총 6억7천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38만6천535㎾다.

전기 요금으로 따지면 연간 5천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군청사 전기요금의 18% 수준으로 향후 군청사 유지 관리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기 요금 절약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연간 171t의 CO_2 온실가스 절감 효과와 소나무 2만7천393그루의 식재효과와 맞먹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추석 응급진료 대책 수립

18-22일 99곳 비상체계 유지

무안군은 16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과 진료 공백에 대비해 응급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 99개소(병의원 46개소, 약국 35개소, 보건기관 18개소)가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와 당직에 참여한다.

군은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군과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 게재해 주민들이 추석 명절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명절 기간 중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무안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해 환자 발생과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옥수 기자

영광청소년복지센터, 또래상담자 온라인 심화교육

22명 참여…상담기법 실습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최근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해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화교육에는 영광군 또래상담자 연합회(또담회) 또래상담자 22명이 참여했다.

'또래상담'은 친구를 돕는 일이나 상담에 관심이 있는 각 학교 또래상담자들이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영광군 또래상담자 연합회(또담회)는 중등 3개교, 고등 3개교 등 총 6개 학교의 또래상담자 5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화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는 다양한 상담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 폭력 없는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래상담 사업 담당자는 "직접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래상담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또래상담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작가 레지던스 사업 결실

송기원 소설가 청소년 소설 '누나' 출간

해남군이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운영하는 작가 레지던스 사업이 연이어 결실을 맺으며 한국 문학 창작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8년 만에 장편소설 '숨'을 펴낸 송기원(사진) 소설가가 최근 청소년 소설 '누나'를 발간했다.

'누나'는 송기원 소설가의 첫 번째 청소년 소설로 광복 전후 혼란한 1940년대 가메뚝을 배경으로 한다. 대기근으로 인해 만주로 떠난 엄마를 기다리는 '양순이'를 중심으로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가슴 아픈 인물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성장소설이다.

'누나'는 송기원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 속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가 어떻게 자기 혐오를 극복하며 밑바닥 삶을 보듬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해방기 시대상과 민중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부터 문인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는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회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작가들에게는 쾌적한 개인 공간과 안정적인 집필환경을 제공한다.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연 4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작가들과 상생하는 다양하고 모범적인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문인들이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좋은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벌초 대행 서비스 인기

완도군은 16일 "추석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다 함께 멈춤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벌초 대행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완도군과 완도군 산림조합이 협약을 체결해 고향에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연고자가 없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자 하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1천320기가 접수됐다.

이에 완도군 산림조합은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추석 전 벌초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단 20여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주말에도 작업하는 등 신속하게 벌초를 실시했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군의 지리적 특성 상 청산면과 보길면, 부속 섬 등 원거리부터 순차적으로 벌초를 완료했다.

지난해보다 신청량이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해 계획보다 5일을 앞당겨 지난 13일 벌초를 완료할 수 있었다.

벌초가 끝난 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묘지와 헌화, 헌주 등의 사진을 신청인에게 문자로 전송해 호응을 얻었다. /완도=윤보현 기자

ONLINE

THE 21ST ENGLISH SPEECH CONTEST

광주전남제주 지역본선

접 수 IYF 홈페이지 www.iyf.or.kr , 하단 큐알코드로 접수
중·고등부 10월 9일(토) 18:00까지
대학부 10.16(토) 18:00까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소재 중·고,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원 고 중·고등부 3분, 대학부 4분 발표 분량
지역본선 10월 30일(토) ※ZOOM 화상회의 진행
문 의 1588-2346 / english@iyf.o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주 제 중·고등부& 대학부 공통 주제
1. 나의 꿈 (십년 후 내가 소망하는 세상 등)
2. 감동적인 순간 (행복했던 때, 잊지못할 추억 등)
3. 내가 존경하는 인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등)
4. 교류, 절제, 사고력
중·고등부 추가 주제
5.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상
6. 21세기 지구문제와 나의 역할
대학부 추가 주제
5. 21세기 지구환경문제 인식 및 해결방안 제시 (환경정책, 과학기술, 적정기술)
6.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에서의 인간의 역할
※ 위의 주제 중 택일하여 원고를 작성, 원고와 발표는 동일해야 함.

※ 행사 지원시 주의사항
1. 행사 지원과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 지원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며, 본 행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참가자 발표 영상과 사진의 저작권은 IYF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접수 대학부 접수

주 최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YF) 후 원 교육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